

# 고민과 정보 함께 나누는 출판인들의 자리

서울출판인포럼 주최 제1회 추곡리 출판캠프... 이틀간 35개사 50여명 참가

서울출판인포럼이 주최하는 제1회 추곡리 출판캠프가 지난 9월 5일부터 1박2일 동안 경기도 광주군에 마련된 '한길북하우스'에서 치러졌다. 한국 출판의 변화하는 현실과 미래, 그에 대한 우리 출판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한 이번 캠프에는 출판사 및 관련단체 등 35개사 50여명이 참석해 출판인 재교육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 진지한 분위기속 5개 강좌로 진행

서울출판인포럼의 총무이자 후원사 한길사의 대표인 김연호 사장의 인사로 시작된 캠프는 뽀뽀한 일정에도 끝까지 진지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이틀 동안 모두 5개 강좌가 진행됐는데, 서울신문 이중한 논설위원의 <한국 출판의 현재와 미래>, 김연호 사장의 <출판의 길, 출판인의 길> 등 첫날 강의에 이어 이튿날은 한국언론연구원 성동규 선임 연구위원의 <세계화시대의 출판>, 한울 김종수 대표의 <21세기 출판환경>, 복디자이너 정병규씨의 <복디자이너의 시각에서 본 한국출판의 원점>이 이어졌다.

이틀간의 강좌는 정보혁명과 멀티미디어 등 출판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그 요점이 모아졌다. 첫 강좌를 맡은 이중한 논설위원은 우리 출판의 현재를 암담하게 만드는 세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출판의 기본구조로서 공공도서관 문제, 소매점이 유통을 전담하는 불합리한 유통체계, 책임기를 가르치는 도구로서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출판의 미래에서는 멀티미디어화와 전자화로 요약되는 미래세계에 출판이 살아남기 위해서 책의 가치를 재창조해야 한다는 것, 전자상거래의 가시화를 앞두고 출판경영이 과학적·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다음 세기가 창조적 상상력의 세기가 될 것임을 예견하고 책이 그 창조력의 뿌리가 되리라고 전망했다.

두번째 강좌는 김연호 사장이 출판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출판방향을 진단했다. 출판문화가 저술역량, 전통·역사, 기획역량, 독자의 역할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하고, 각 방향에서 출판활동이 어떻게

**이번 출판캠프는 출판인의**

**고민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더욱 내용 있는**

**정기 모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무엇보다**

**변화하는 출판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출판인들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진행되어야 하는지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진보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낙관적 보편주의가 궁극적으로 독자들을 장악하게 되리라고 한다.

이튿날 아침 8시 30분부터 각기 2시간씩 진행된 3개의 강의는 미래출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성동규 위원이 발표한 <세계화시대의 출판>은 글로벌화와 뉴미디어 출판이 예견되는 미래출판에 어떤 출판정책이 필요한가를 점검했다. 특히 미국·영국·독일의 구체적인 출판정책을 통해 국내 출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암시를 얻을 수 있었다.

이어 김종수 사장은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책이 해왔던 역할이나 기능의 많은 부분을 다른 매체가 대신하게 되었다고 전제하고, 책의 미래모습을 예견했다. 디지털화하는 학술출판, 지식·정보·오락 등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출판 등이 미래출판의 모습으로 제시됐다.

정병규씨는 책이 종이라는 물질로 구성된 '형태적 사물'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출판디자인이 더이상 장식적인 가치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불안한 활자문화의 미래에 새로운 출판디자인이 하나의 활로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은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

## 내용있는 정기모임으로 지속되길

첫날밤과 이튿날 오후 진행된 종합 자유토론에서는 출판캠프가 그동안 재교육의 기



경기도 광주군의 한길북하우스'에서 열린 제1회 추곡리 출판캠프(위). 종합토론에서는 출판캠프가 쌍방향 프로그램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아래).

회를 고대하던 출판인들에게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총평하고, 앞으로 출판캠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 있었다.

출판기획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덕희씨 등은 출판캠프의 전체적인 모양새가 발제자들 중심의 강의식이기보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출판인들의 의견교환과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또 새물결의 조형준씨를 비롯한 몇몇 참가자들은 준비과정과 진행과정에서 수용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쌍방향 프로그램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주최측은 즉석에서 출판캠프 기획을 담당하고 밑으로부터의 의견수렴의 통로가 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한길사 기획실의 이승우씨를 중심으로 새물결의 조형준 기획실장, 출판기획자 이덕희씨, 교문사의 양계

성 편집장, 산하의 김영수 관리부장이 소위원회 구성원으로 자원했다.

주최측을 대표해 김연호 사장은 이번 모임의 위상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릴 출판캠프의 총론적 모임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몇 개의 출판사 사례를 모아 조별로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발표하는 식의 방법도 제안했다.

이번 캠프는 출판인들이 고민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였다.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앞으로 내용있는 정기 모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무엇보다 출판인들이 변화하고 있는 출판환경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갑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 이현주 기자